


[제2016- 호]

 한국문화원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시	2016. 12.30 (금)	담당자	최희선 323-936-3014

LA한국문화원 -워싱턴 D.C.한국문화원 문화교류 전시:

One-Step Up

- ▶ 전 시 명 : One-Step Up
- ▶ 일 시 : 2017.1.13(금)-2.3(금)
- ▶ 개 막 식 : 2017.1.13(금) 7:00pm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 최 : LA 한국문화원, 워싱턴 DC 한국문화원
-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과 워싱턴한국문화원(원장 박명순)은 미주한인의 날을 맞이하여 LA 및 남가주지역 및 워싱턴DC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한인 작가 대상으로 문화교류 기획 전시를 2017. 1.13(금)-2월3일(금)까지 ‘One-Step Up ’이라는 타이틀로 LA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One-Step Up”전시는 지난 8월 워싱턴D.C.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Same Way, Different (같은길, 다른여정)” 전시와 연계된 후속 전시이다. 이러한 지역 문화교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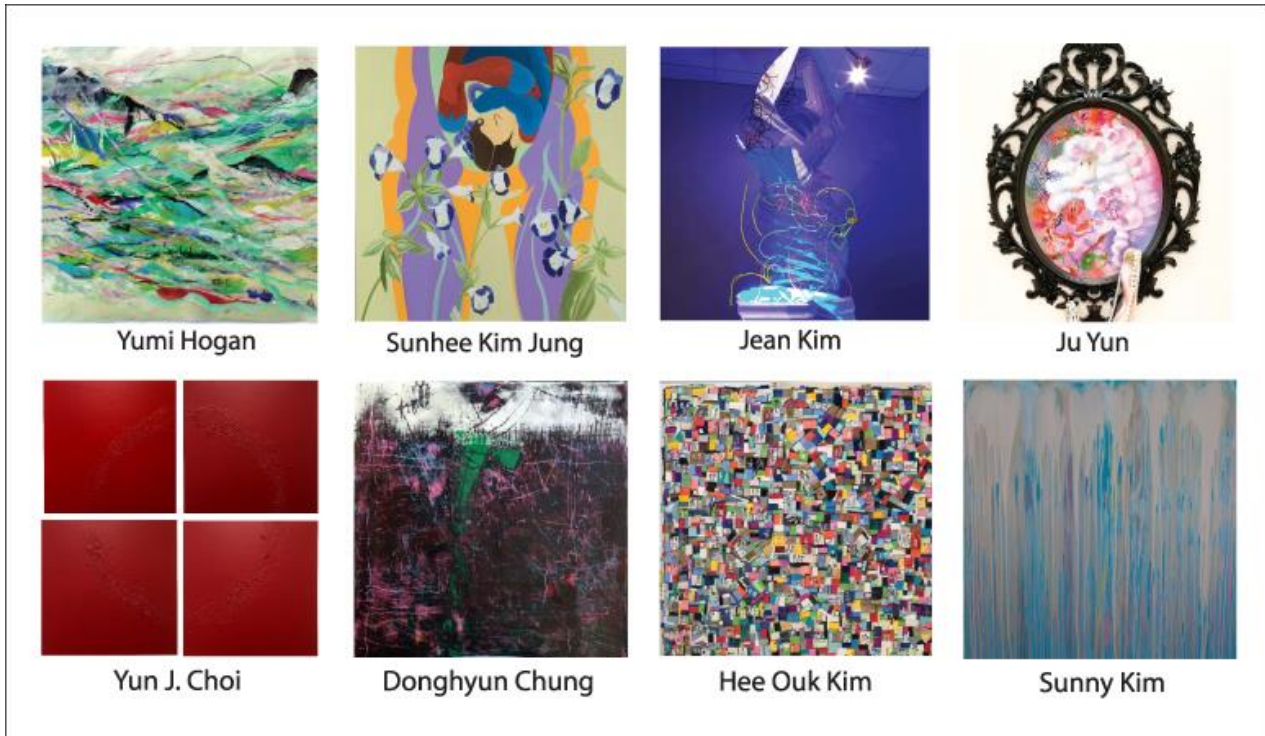
는 2014년 멕시코한국문화원(원장 장치영)과 북남미 교류전이 성황리에 개최 된 것에 힘입어 계속 추진하게 되었으며, LA한국문화원은 이러한 문화교류 전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LA는 물론 미 중서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미 주류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중심점이 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예술가들이 각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작품을 통하여 진정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교류, 발전시킨다면 우리의 문화를 이 곳 미국에서 소개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전시가 꾸준히 성장하여 작가들의 축제로 커져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라고 언급했다.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던 “Same Way, Different Path”전시는 같은 이민자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 LA와 워싱턴이라는 지역적, 문화적 차이점을 작품 속에서 찾아보고자하였다. 특히, 한국문화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여 작품 속에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를 찾고자 하는 재미한인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으며, 그 반응 또한 기대이상으로 높았다. 이번 전시는 워싱턴DC에서 보여준 그들의 다양성과 무한한 영역을 한단계 더 높이고, 더 나아가 미주류 미술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 참여작가 : LA작가 - 김희옥 / 정동현 / 홍선애 / 최윤정

Washington, D.C.작가 - 유미호건 / 윤주양 / 선희김정 / 차진호



김희옥작가의 작품 속에는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로스앤젤레스가 반영되어있다. 작가는 인간의 모습 자체가 아름다움이라 생각하여 한 무리의 걸어 다니는 움직이는 작은 인물들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 속 등장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등장하여 작은 개체들 하나하나가 지닌 개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각 개체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거대한 무리 속에 다 같이 섞여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지닌 사회성도 함께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양면성 보여주하고자 했다..

정동현작가는 1000년이 넘게 이어온 한지가 작업의 주재료이다. 한지는 그 오랜세월 함께한 여인들을 상징하기도하며, 그들과 작가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이기도하다. 작가는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한지를 서로 다른 색으로 겹겹이 풀로 붙인 후, 마치 우리의 여인들이 받은 깊은 상처를 그랬듯이, 갈아내고, 찢어내고, 긁어내면서 그 밑에 내재하고 있는 또 다른 깊은 색감과 형태를 찾아 가고 있다. 이 모든 수 작업은 마치 과거로의 여행이며 다치고 찢긴 많은 영혼들을 보듬어 주는 동시에 작가의 마음 또한 달래주는 행위이기도하다

홍선애작가는 광활한 우주와 하늘의 의미를 물리적 세계를 넘어 영적인 영역의 세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드넓은 우주 형상을 작은 캔버스 안에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뿐이었다. 캔버스에 천체의 움직임을 색상으로 표현하고 상징되었으며,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모습은 작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위에 고스란히 표현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그 안에서 찾고자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최윤정작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하나의 종교행위이다. 인간은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했다. 우주와 인간질서는 반복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돌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작게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그림에 반영하여 작품을 보는 이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공감을 나누려고 하였다.

유미호건작가 / MD 여사의 작품은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에 추상적인 비전과 작가 고유의 해석을 접목했다. 특히, 작가는 작품 속에 자연과 인간의 삶의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조명하는 특성이자 우여곡절을 담은 산들바람, 나무와 자연의 살아 있는 것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삶을 자연의 조화의 일부 표현하고 희미한 곡선을 강조한다. 유미호건 작가는 메릴랜드대학교 및 아메리칸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후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메릴랜드 미술 대학(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다.

윤주양작가의 작품은 흘러가는 세월을 아련한 기억 속의 그리움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만의 조형 언어를 한국전통 문양과 색동으로 표현한다. 전통문양은 자연에 대한 경외와 우리 민족의 신령스러운 정감이 깃들여 있고 또한 색동은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어 더욱 현대풍 색감의강인함을 잘표현 한다. 작가의 작품 모티브는 삶의 여정에서 얻어낸 추억, 시간, 생명, 자연, 삶 등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성을 전통적 문양과 색동으로 현대작품으로 재 해석 해낸 한편의 서정시라고 할 수 있다.

선희김정작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모습에 수퍼히어로의 이미지를 입혀놓았다. 우리모두가 세상을 바꾸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 한편으로는 이미 벌써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번 작품 시리즈를 구상하였다. 선희김정 작가는 코코란 미술대학 및 아메리칸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후 국 내 외에서 활발한 전시에 참여해왔으며 앤 어런델 커뮤니티 칼리지(Anne Arundel Community College)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다.

차진호작가의 작품은 두 가지 컨셉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재료들에 대한 연구와 둘째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공간, 색, 그리고 형태등을 통해 그들이 예술로 새로이 태어나 작가와 관객들간의 뜻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였다. 차진호 작가는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와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후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 지역 외에도 베를린, 홍콩, 서울을 오가며 다수 전시에 참여해왔다.

이번 교류전시는 2017년 1월13일(금)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2월3일(금)까지 개최되며, 개막식에는 워싱턴DC 작가들과 함께 LA작가들이 참여하여 작품에 대한 그들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최희선 323-936-3014로 하면 된다.